

한국여성에서 액와 부유방의 빈도 및 유방 X-선 촬영소견에 관한 고찰¹

¹대림성모병원 진단방사선과
²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 교실

성 현 립¹ · 박 정 미²

Incidence and Mammographic Appearance of Accessory Axillary Breast in Korean Women¹

¹Hyeun Lim Seong, M.D.¹, Jeong Mi Park, M.D.²

¹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Dae Lim St. Mary's Hospital

²Department of Diagnostic Radi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ncidence and radiological appearance of accessory axillary breast in Korean women.

Materials and Methods : We reviewed 500 mammography of healthy Korean women. The incidence, size, shape, symmetricity and laterality of accessory axillary breasts were evaluated.

Results : The incidence of accessory axillary breast was 3.4% (17 cases). Unilateral, scattered appearance was the most common radiological finding (5 cases). Bilaterality was shown in 7 cases with same shapes in both sides.

Conclusion : The incidence of accessory axillary breast in Korean women was in the range of reported incidence. The findings of accessory axillary breasts of healthy women on mammography would help to make the differential diagnosis from other axillary lesions including the diseases from themselves.

Index Word : Breast radiography.

Breast, congenital anomaly.

목 적 : 한국 여성에서의 액와 부유방의 출현 빈도 및 그 유방 X-선 촬영 소견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대상 및 방법 : 특별한 증세 없이 종합 건강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한 건강한 한국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유방 X-선 촬영상 액와 부유방의 빈도, 크기, 모양, 좌우 분포, 대칭성 등을 분석해 보았다.

결 과 : 500명의 여성 중 17명 (3.4%)에서 액와 부유방을 관찰 할 수 있었고 일측성이면서 산란형이 가장 흔한 형태로 나타났다 (5례). 양측성 분포를 보이는 경우, 양쪽의 모양은 항상 같았다 (7례).

결 론 : 한국 여성에서 액와 부유방의 빈도는 외국의 문헌에 보고된 범위 내에 있었고 유방 X-선 촬영상 모양은 3가지로 크게 대별될 수 있었다. 이러한 소견에 익숙해 짐으로써 다른 병변으로 인한 액와 종괴와의 감별은 물론 수술적 진단과 같은 침습적 과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추후 액와 부유방 조직 내에 생길 수 있는 가능한 병변들과의 감별 진단에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된다.

서 론

임상적으로는 액와 부유방의 정의로 액와부 종괴, 유방조직 없는 유두 혹은 유륜, 유방 조직과 유두 그리고 유륜이 모두 있는 경우 등을 포함 시킨다. 정상적으로 액와 부유방은 전체 여성의 2-6%에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유방 X-선 촬영시 상당히 많은례가 관찰 되고 있으나 저자들이 아는 바로는 한국 여성의 액와부유방의 X-선 촬영상의 빈도와 그 소견에 대한 국내보고가 없어 본원 정기 건강 검진으로 유방 촬영을 실시한 한국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하여 액와 부유방의 빈도와 그 소견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본원에서 건강 검진의 일환으로 유방 촬영을 실시한 500명의 한국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나이는 평균 45.16세였다 (17세-72세). 유방촬영 기기는 GE Senographe 500T 이었고 Fuji UM-MA cassette, Fuji HR mammo fine screen 그리고 Fuji UM-MA film을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focus에서 film 거리는 50cm, focus size는 0.3mm였으며 33kVp, 20-25mAs로 phototimer를 이용하여 촬영 하였다. 각 환자는 양쪽 유방의 상하 촬영 (craniocaudal view) 과 내외 사위 촬영 (mediolateral oblique view)을 하였고 이 중, 분석에는 내외 사위 촬영을 이용하였다. 한번 이상의 유방촬영을 실시한 경우 이전 검사를

같이 놓고 비교 분석 하되, 숫자상으로는 1건으로 처리하였다. 분석은 진단 방사선과 전문의 두명이 독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재검토하여 의견을 일치시켰다. 부유방 조직이 한쪽에만 보이는가 양쪽에 모두 보이는가를 구분 하였고 모양은 세가지 형으로 구분하여 보았는데 유방조직이 뚜렷하게 보이면서 뭉쳐져 있는 것을 종괴형 (Fig.1), 유방조직은 있으나 피하 지방 조직과 섞여 흩어져 있으면 분산형 (Fig.2), 그리고 주위 혈관 혹은 피하 섬유질과는 구분이 되는 직선 또는 곡선의 줄모양으로 보이면 선형 (Fig.3)으로 보았다. 크기는 보이는 유방조직의 직각 최장경을 측정 하였다.



Fig. 1. Mediolateral oblique view of a 38-year-old woman (Case No.1). Bilateral "mass-like" accessory axillary breasts are shown. The patient felt a palpable mass in right axi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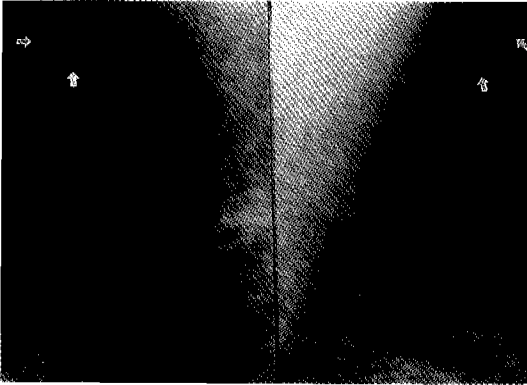


Fig. 2. "Scattered" appearance of bilateral accessory axillary breast in a 42-year-old woman (Case No.7). Glandular tissues and subcutaneous fat are mixed with each other irregularly.



Fig. 3 "Linear" appearance (white arrows) of left accessory breast (Case No.17). Note transverse, linear distribution of breast parenchymal tissues in left axilla.

결 과

500명 중 17명에서 액와 부유방이 발견되었고 이들 중 양측형이 7례, 일측형이 10례로서 총 24개의 액와 부유방을 보였다. 이들중 분산형이 13례 (9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Table 1). 액와 부유방이 양측성인 경우에서 그 모양은 양쪽이 항상 같은 형을 보였다. 각 액와 부유방의 크기는 표 2와 같다.

Table 1. The shape and site of accessory axillary breast on mammography

Shape	Bilaterality		Unilaterality		Case No.
	Right	Left	Right	Left	
Mass like	1	1	3	0	5
Scattered	4	4	2	3	13
Linear	2	2	1	1	6
Total	7	7	6	4	24

Table 2. The size of the accessory axillary breasts

Shape	Case No.	Size (cm × cm)		Mean (cm)
		Right	Left	
"Mass-like"	1	2.0 × 4.5	1.5 × 2.0	3.86
	2	1.5 × 2.2		
	3	1.0 × 2.0		
	4	1.0 × 2.0		
"Scattered"	5	3.0 × 4.5	3.0 × 2.0	3.83
	6	2.5 × 1.5	1.5 × 2.5	
	7	2.8 × 3.0	2.5 × 1.5	
	8		2.5 × 0.8	
	9		1.0 × 0.5	
	10	1.7 × 1.0		
	11	2.0 × 2.5		
	12	1.0 × 0.7		
	13	0.3 × 0.7	0.5 × 1.0	
	"Linear"	14	1.5 × 0.5	
15		0.7 × 2.5	0.3 × 2.5	
16		3.0 × 0.5		
17			3.5 × 0.5	

고 찰

정상적으로 임신 5주부터 양측 유방선이 액와부에서부터 서혜부까지 형성 되는데 임신 7주 정도에는 유방능선이 흉부에서 형성되면서 다른 유방선은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유방선이 남아 있다든가 혹은 유방선이 지나치게 분산 발달 되어 있는 경우 부유방이 형성 될 수 있다 (1). 액와 부유방은 겨드랑이에 높게 위치하는 경우가 흔하며 한 쪽 또는 양쪽 모두에서 가능하다. 드문 경우에는 유두가 있을 수 있다 (2). 환자는 종괴를 주소로 내원하는 경

우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 증상이 없으나 정상유방 조직과 같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므로 월경전이나 임신 수유기 동안 통증이나 팽창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1, 3). 본원 검사로는 액와 부유방의 빈도는 약 3.4%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 문헌에 보고된 약 2-6%의 발견율의 범위내에 있었고 오 등(4)이 초음파로 보고한 2.8%의 국내 빈도 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를 보였다. 모양은 분산형이 24예중 13예를 보여 가장 많은 형태로 나타났고 양측성 보다는 일측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일측성인 경우 우측이 7명, 좌측이 3명으로 우측에 있는 경우가 좌측에 있는 경우보다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고된 문헌과 일치하는 소견이다. 부유방의 크기를 표시하는데는 가로와 세로의 최장경을 측정 하였는데 유방 촬영 사진에서 세로측은 부유방의 전장이 보이지 않고 중간에서 잘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정확성이 가로측 보다 떨어진다. 크기 측정의 의미는 전체적인 넓이의 비교에 있었는데 종괴형과 분산형이 선형 보다 현저하게 큰 평균값을 보이는 외에 종괴형과 분산형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Table 2).

임상적으로 액와 부위에 종괴가 만져진다고 부은 듯한 경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감별진단들은 액와

부유방과 지방종, 임파절 종대, 기타 다른 액와부 종괴 등이 있겠는데 액와 부유방의 진단에는 유방 X-선 촬영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써 진단을 위한 조직 생검과 같은 침습적인 과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논문에는 한례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액와 부유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유방 병변의 진단을 위해서도 정상인의 액와 부유방의 소견에 익숙함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Dorit DA, Murray R, David RP. Accessory breast tissue in the axilla ; Mammographic appearance. Radiology 1987;163:709-711
2. Kopans DB. Breast imaging. Philadelphia : J B Lippincott, 1991:62
3. Bhattacharaya P. Pregnancy with huge bilateral hypertrophic axillary tail of the breast. Br J Obstet Gynaecol 1983;90:874-875
4. 오기근, 조재현, 윤춘식, 김미혜. 부유방의 초음파 소견. 대한방사선의학회지 1993;29:839-843